

‘오명의 역사’ 22사단 또 뚫렸다... 새해 첫날부터 월북

모두 내륙산간 경계지역서 발생
저주 받은 전장환경 등 총체적 난국
힘든 환경 감안해도 초동조치 미흡

검은 호랑이 해의 첫날, 경계취약 부대의 대명사인 22사단에서 우리 국민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사단에서의 월북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2사단 월북사건은 모두 해안 경계지역이 아닌 내륙산간 경계지역에서 발생했다.

◆22사단, 새해 첫날부터 월북... 이어지는 오명의 역사

2일 합동참모본부는 “어제(1일) 오후 9시 20분께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미상 인원 1명을 감시장비로 포착해 신병 확보 위해 작전 병력 투입해 DMZ 작전 중 해당 인원이 오후 10시 40분께 MDL을 넘어 월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군 특이 동향은 없다”면서 “미상 인원에 대한 구호 차원에서 서해지구 통신선 대북



지난해 12월 16일 이승오 육군 제22보병사단장(소장)이 강원 고성군 사단 연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2사단은 노크 귀순 등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지휘관 교체가 잦아 별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뉴스시스

통지문을 오늘 아침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화형을 당했던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여진다. 다만, 22사단의 과거 사례를 볼때 미상 인원은 22사단 북부 경협자일 가능성도 높다.

22사단 지역은 남북모두가 GOP철책을 전방으로 추진해 양측 철책 간의

거리가 짧은 편이다. 22사단은 북측으로부터의 경계뿐 아니라 민간인 통제선 이남의 통제도 어려운 곳이다. 1984년 6월 26일 ‘국군역사상 최악의 총기사건’이라 불리는 ‘조준희 일병 총기난사 및 월북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22사단 56연대(현 여단) 4대대 TOC(상황실)에서는 수류탄 폭음과 아비규환의 비명

소리가 보고됐다.

522GP 상황병이던 조일병이 전우들을 향해 수류탄을 투척하고, 소총을 난사한 후 북한으로 월북한 것이다. 이 사건은 다음 날 조 일병의 대남월북권유 방송을 통해 월북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조 일병을 주적하던 병력들 중 일부가 지뢰를 밟았고, 오인사격으로 사망하는 악재가 더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15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2005년에는 예하 55연대 전방 GOP 대대의 무기가 민간인에게 탈취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22사단을 전역한 중사와 병장으로, 부대 사정에 밝았던 이들은 상황병을 속여 K 2 소총 2정과 실탄 700여발·수류탄 6발 등을 탈취했다.

2009년에도 22사단 전역자인 강동림이 56연대 경계책임 구역의 철책선을 끊고 월북했다. 군 당국은 폭행전과가 있던 강씨가 월북한 사실도 북한측이 대대적으로 알리기 직전까지 알지 못해, 사건을 은폐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

을 받기도 했다.

◆왜 저주의 22사단인가...총체적 난국 풀기 어려워

22사단의 경계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해당부대 GOP를 복무한 장교들은 “저주받은 전장환경과 과확화 경계의 맹신, 관광지 특성의 지역민원, 현 정부들이 추진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등이 묶인 총체적 난국”이라고 답했다.

익명의 영관 장교는 “22사단 경계책임구역은 내륙 28km, 해안 69km로 총 97km다. 타 최전방 경계부대의 경계책임 구역의 수 배에 달한다”면서 “더욱이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인해 민통선 이북의 통일전망대,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등 관광지가 산재해 있어 장병들의 경계임무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22사단이 속한 8군단은 ‘장군의 무덤’이라고 불린다. 더욱이 병력감축과 맞물려 군단이 해체되면 22사단의 경계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미래차 인재 예산 대폭 늘린다... ‘2배 증액’

산업부, 전문인력 양성 224억 지원
3개 사업, 총 178억의 신규사업 편성

정부가 미래차 전환 관련 인재 양성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학생부터 재직자, 실직자까지 고용 분야별 전 주기 단계에서 2022년 224억원을 집중 지원해 2233명의 미래차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원 총액은 작년(104억9000만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규모로, 특히 3개 사업 총 178억원의 신규사업을 편성했다. 이는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 전환하면서 생기는 인력양성 수요에 맞춰 지원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미래차 산업기술인력은 2015년 9476명에서

2018년 5만533명, 2028년엔 8만9069명으로 인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우선 올해부터 자동차, 기계, 컴퓨터 등 공과대학 학과 3~4학년 학부생 720명을 대상으로 미래형자동차 관련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업·연구기관과 연계한 현장실습·인턴십 등을 개설한다. 특히 기계, 전기·전자 등 미래차 유관 학과 대상 집중 교육과 석박사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한 배출 인력의 양적·질적 전문성 제고에 나선다.

자율주행과 친환경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석·박사급 대상 특화분야 교육 과정 개발과 기업 수요 맞춤형 산학프로젝트 등을 운영해 173명의 고급인재 양성에 나선다. 특히 딥러닝 기반 장애물 및 주행 환경 인식 등 다

양한 형태로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가 연계된 차량용 SW를 특화분야로 선정했다.

미래차 분야로 직무 전환하거나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현장인력과 중장년층 실직자 1340명을 대상으로 미래차 융합 및 기능 기술 직업훈련, 부품 품질관리 및 진단·정비 등 직무 훈련을 실시한다. 산업부는 직무 전환 또는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자동차부품기업 또는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리더/실무자 교육과정을 사업재편 전략품목에 따라 모듈화해 사업전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석·박사 및 재직자 관련 신규사업은 올해 1월 중, 학부 지원 관련 사업은 하반기 신규과제를 공고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오는 5일과 6일 이틀간 2022학년도 서울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이 진행된다. 교육부가 방역 대응 강화 조치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사항을 발표한 지난달 16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 /뉴스시스

서울 초등학교 신입생 7만442명 예비소집

오는 5~6일... 비대면 병행

2022학년도 서울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이 오는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5일·6일 서울 공립학교 565개교에서 2022학년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2022학년도 서울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7만442명으로 7만1138명이던 지난해보다 696명 줄었다. 보호자와 아동은 예비소집에 참석해 주민센터에서 배

부받은 취학통지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입학등록을 해야 한다. 예비소집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맞벌이 부부 등의 예비소집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평일 이틀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및 보호자는 입학 예정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예비소집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해 대면 확인 또는 온라인 예비소집, 영상통화,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증명서 제출 등의 비대면 방식도 병행된다.

/이현진 기자 ihj@

190개 하청업체에 갑질... HDC현산 과징금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HDC현대산업개발이 190개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및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대산업개발(주)의 인적분할로 2018년 5월 2일 신설됐으며, 현대산업개발(주)의 건설 사업 부분을 포괄 승계한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

발은 2016년 1월 ~ 2019년 3월까지 3년여 기간 동안 53개 하청업체에 습식 공사 등 86건을 건설·제조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에 착공(또는 납품개시)한 후 최소 3일에서 최대 413일을 지연해 발급했다. 또 같은 기간 중 46개 하청업체에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212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35개 하청업체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543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오늘부터 신청 가능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기업과 정부 지원금을 받아 최대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접수를 시작해 청년 총 7만명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300만원, 600만원을 각각 지원해 총 1200만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기업일수록 지원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중앙대, LMO 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

과기부 장관상 수상

중앙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주관한 ‘2021년도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우수 기관·시설’에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우수 기관·시설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따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평가 제도다. 과기정통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는 시험·연구용 LMO를 이용하는 기관들 가운데 우수한 대상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관계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